

## 제4절 오세아니아권 지식정보콘텐츠 시장 동향 및 전망

### 1. 오세아니아권 지식정보콘텐츠 시장의 개요

2010년 오세아니아권 지식정보콘텐츠 시장규모는 약 17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향후 5년간 연평균 11.1%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2015년에는 약 2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 시장별로는 이러닝시장이 약 9억 달러, 정보콘텐츠가 5.5억 달러로 나타난다. 모바일 시장은 만 달러로 예상되어 전체의 00.0%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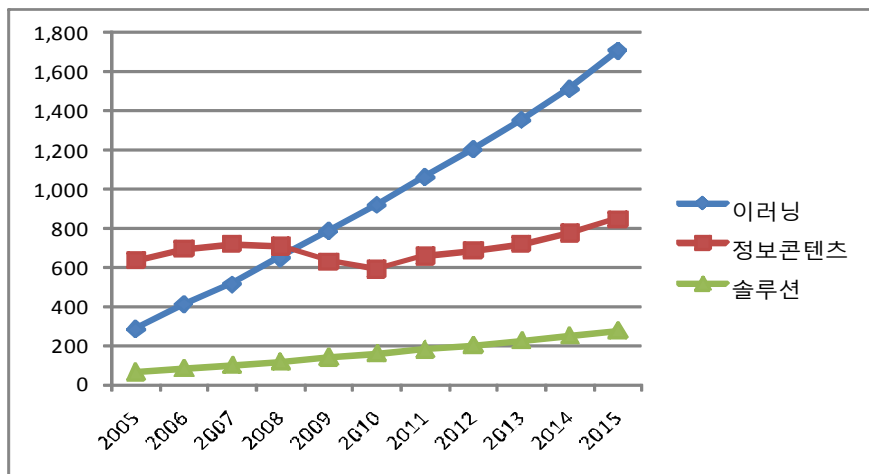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이러닝 시장 13.2%, 정보콘텐츠 7.4%, 솔루션 11.8% 등으로 예측되었다.

<표 III-14> 오세아니아 지식정보콘텐츠 시장규모 추이(2005~2015)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15 CAGR
이러닝	281	410	513	646	783	917	1,057	1,201	1,351	1,510	1,706	13.2%
정보콘텐츠	637	696	719	709	631	593	657	687	720	775	847	7.4%
솔루션	64	82	98	119	139	159	180	202	224	248	278	11.8%
모바일												
합계	982	1,187	1,330	1,474	1,553	1,669	1,894	2,090	2,295	2,532	2,830	11.1%
전년대비 성장률		21.0%	12.0%	10.8%	5.4%	7.5%	13.5%	10.3%	9.8%	10.4%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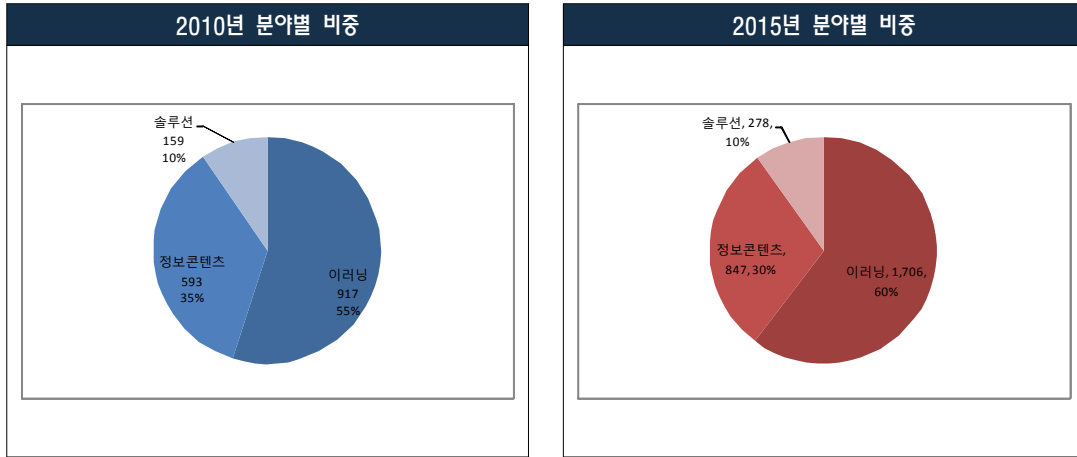
자료원: PWC (2010); GIA (2010); Simba Information (2010)



자료원: PWC (2010); GIA (2010); Simba Information (2010)

분야별 시장규모는 2010년에는 이러닝 시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성장률 또한 가장 높으므로, 그 비중이 2015년에 약 60%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III-16] 2010년과 2015년 오세아니아권 지식정보콘텐츠 시장 분야별 비중



자료원: PWC (2010); GIA (2010); Simba Information (2010)

## 2. 호주 지식정보콘텐츠 시장

### 가. 호주 지식정보콘텐츠 시장의 규모 및 전망

2010년 호주 지식정보콘텐츠 시장규모는 4억 600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향후 5년간 연평균 5.3%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2015년에는 5억 2,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 시장별로는 이러닝시장이 약 7억 9200만 달러, 정보콘텐츠가 5억 1,200만 달러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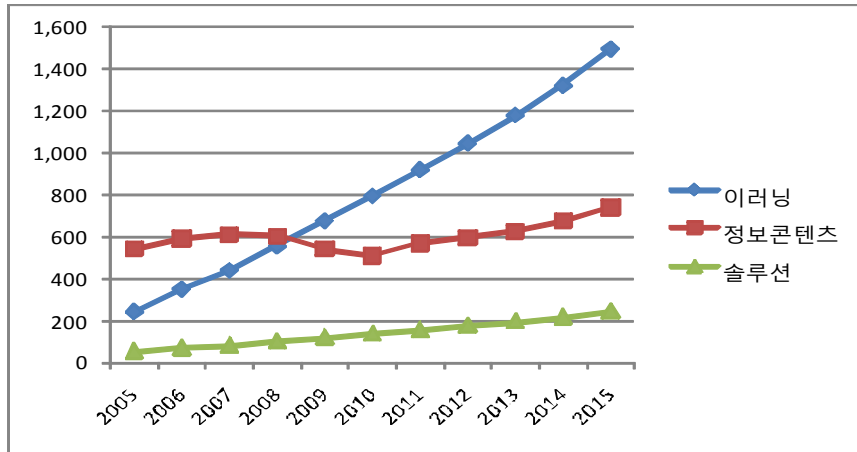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이러닝 시장의 경우는 연평균 13.5%의 증가세를 가질 것으로 전망되며, 정보콘텐츠는 연평균 7.7%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표 III-15> 호주 지식정보콘텐츠 시장규모 추이(2005~2015)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15 CAGR
이러닝	239	349	437	552	673	792	915	1,042	1,175	1,317	1,492	13.5%
정보콘텐츠	542	593	612	606	543	512	570	596	626	676	741	7.7%
솔루션	54	70	83	101	120	138	156	175	195	216	243	12.0%
모바일												
합계	835	1,011	1,132	1,260	1,336	1,442	1,641	1,813	1,996	2,209	2,475	11.4%
전년대비 성장률		21.0%	11.9%	11.3%	6.1%	7.9%	13.8%	10.5%	10.1%	10.7%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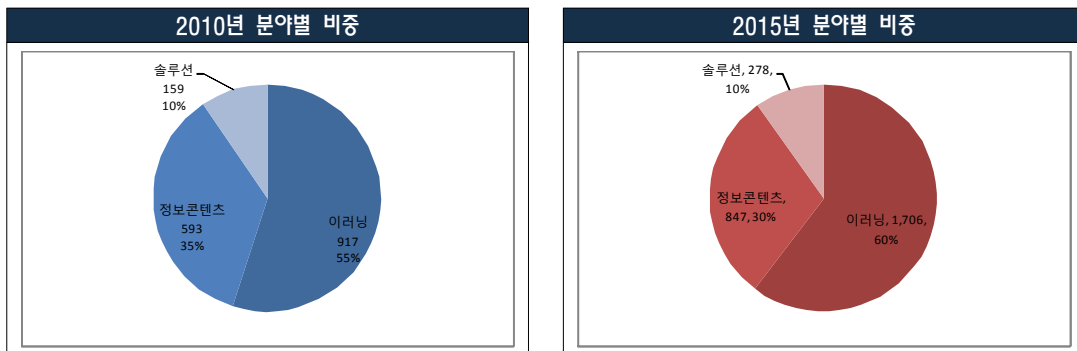
자료원: PWC (2010); GIA (2010); Simba Information (2010)



자료원: PWC (2010); GIA (2010); Simba Information (2010)

분야별 시장규모는 2010년에는 이러닝 시장이 00.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이 정보콘텐츠, 솔루션 시장으로 나타난다.

[그림 III-17] 2010년과 2015년 호주 지식정보콘텐츠 시장 분야별 비중



자료원: PWC (2010); GIA (2010); Simba Information (2010)

2009년을 기준으로 NSW(New South wales)는 32.9%로 가장 많은 판매를 보인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VIC/TAS(Victoria/Tasmania)지역이 26.9%, QLD(Queensland)가 21.9%, WA(Western Australia)가 10.7%, SA(South Australia)/NT(Northern Territory)가 7.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QLD(Queensland)와 WA(Western Australia) 지역의 판매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SA(South Australia)/NT(Northern Territory)와 NSW(New South wales)가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II-16> 지역별 지식정보콘텐츠 시장 현황

(단위: %)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NSW	34.4	35.8	34.7	34.9	35.0	34.3	35.4	34.7	33.5	33.1	32.9
VIC/TAS	29.3	29.5	30.9	30.4	27.9	27.4	25.6	25.9	25.9	25.9	26.9
QLD	18.8	17.9	18.2	18.4	19.7	20.8	21.0	21.2	21.9	22.1	21.9
SA/NT	8.2	8.1	7.9	7.6	8.2	8.0	8.1	8.2	8.1	7.9	7.6
WA	9.4	8.7	8.3	8.7	9.2	9.5	9.9	10.0	10.6	11.1	10.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	-------	-------	-------	-------	-------	-------	-------	-------

주1: NSW(New South wales), VIC/TAS(Victoria/Tasmania), QLD(Queensland), SA(South Australia)/NT(Northern Territory), WA(Western Australia)

호주는 훈련생의 직업교육훈련에의 참여도를 높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유연한 훈련운영을 중요시하고 있는점이 특징이다. 최근 이러한 유연한 훈련운영을 위해“Flexible Learning1)

Framework”이라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Flexible Learning Framework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손꼽히고 있는 것이“e-Learning2)”이다. 본 자료에서는 호주의 e-Learning 훈련정책 동향을 Flexible Learning Framework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호주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한국의 직업훈련기관 등록과 유사하게 등록을 해야 한다. 이러한 기관을 RTO(Registered Training Organization)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RTO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실시되고 있는 모든 훈련 중에서 6~8%가 e-Learning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RTO 중에서는 53%의 기관이 e-Learning을 포함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호주의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TAFE(Technical And Futher Education)에서 약간의 e-Learning을 제공하고 있고, 학교(65%)나 민간 교육훈련기관(33%)의 경우 일부 e-Learning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03

년 NCVER에서 조사한 보고서는 직업교육훈련 영역에서 온라인 이용의 현황을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주별 RTO에서의 온라인 모듈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타즈매니아주의 경우 모든 훈련기관에서 온라인 모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경우 가장 많은 784개의 온라인 모듈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사항으로는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경우 온라인 모듈이 80%이상 온라인만으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졌는데도 불구하고, 대략 절반 정도의 교수자들은 blended learning 형태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e-Learning 훈련 정책은 한국 노동부의 인터넷 원격훈련 정책과 비교할 때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고용보험 환급을 통한 훈련비 지원을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반면, 호주에서는 e-Learning 훈련 정책의 일환으로 인프라 구축, 콘텐츠 개발, 관련 인프라 및 현장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서 기 개발된 e-Learning 콘텐츠를 호주 내에서 인가받은 훈련기관(RTO)에서 훈련에 활용한다. RTO에서 훈련에 e-Learning 콘텐츠를 활용하고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e-Learning만의 별도 규정이나 지침이 아닌, 호주의 일반적인 직업교육훈련체제 내에서 이루어진다.

#### ■ 호주의 e-Learning 훈련정책

호주에서는 2000년부터 e-Learning을 실시하기 위한 관련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호주에서의 e-Learning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는 모든 학습을 의미하며, 호주의 연방정부와 주 정부들은 직업교육훈련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1993년 이후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1999년 ‘AFLF(Australian Flexible Learning Framework) 2000-2004’를 발표하고 5개년 계획에 의해 e-Learning 실시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직업교육훈련 유연화 계획(1단계)을 추진하였다. 이 밖에도 호주에서는 AFLF 외에 e-Learning과 관련된 정책들이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Joint Statement on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Information Economy and Action Plan for 2004-2006'과 'Shaping Our Future: national strategy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04-2010' 등이 있다.

2004년 1단계 프레임워크 정책 사업이 완료된 이후, 2단계 AFLF 2005~2007(3개년) 정책이 2004년 5월 ANTA CEOs에 의해 결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호주의 e-Learning 훈련 정책의 핵심인 AFLF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주관 기구로 FLAG(Flexible Learning Advisory Group)가 있다. FLAG는 정책의 전략적 방향을 제공하고 AFLF를 주관하여 시행한다. FLAG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교육훈련 과학부(DEST, the 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raining)와 호주 정보통신기술교육위원회(AICTEC, the Australi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n Education Committee)에 자문을 하는 직업교육훈련의 숙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e-Learning에 대한 고려를 가지고 직업교육훈련에서 flexible learning에 대한 방향 및 우선순위와 관련된 국가적 이슈에 대해 자문을 수행한다. 각 주마다 FLAG 멤버가 있으며 FLAG에는 전담 비서관(secretariate)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